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리스업 동향과 시사점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홍콩 경제 동향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리스업 동향과 시사점 .....	1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	5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홍콩 경제 동향 .....	8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1
--------------------	----

# 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리스업 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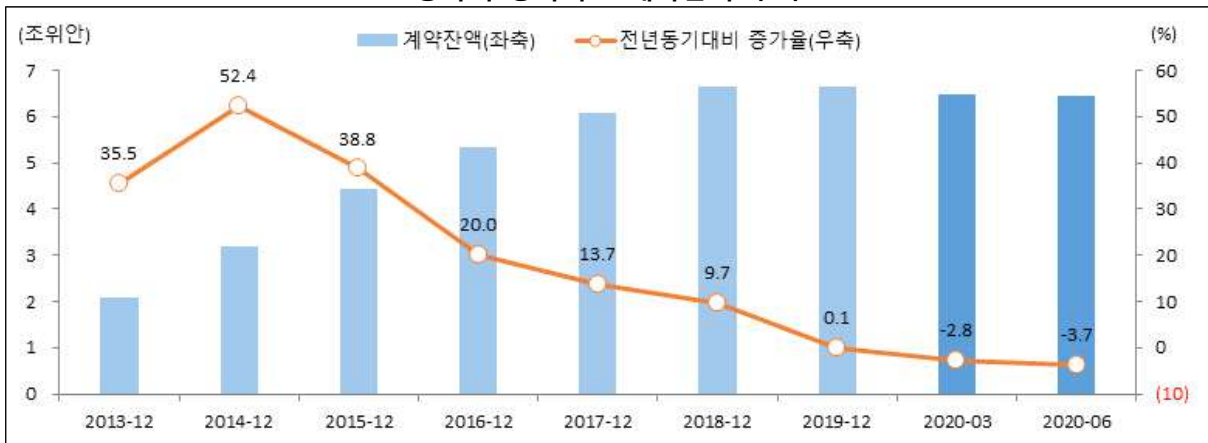
- ◆ 중국의 리스업계는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 특히 은행계 금융리스사는 주요 사업 영역이 항공기, 선박 등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은행권의 리스업 진출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
- ◆ 최근 중국 정부의 감독 강화는 리스업계가 설비 수요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리스업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 □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이 집중된 '20년 상반기 중국의 용자리스\* 계약잔액은 '19년말 대비 감소

\*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Financial Leasing)를 뜻하는 중국식 용어. 용자리스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리스사와 그 외 로컬자본으로 운영되는 내자용자리스사, 외자가 참여하는 외자용자리스사로 구성. 금융리스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 은행간 대출 등이 허용되는 대신 엄격한 감독기준 적용

- 중국의 '20.2분기 용자리스 계약잔액은 6.46조위안(약 1,10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3.0%, 전년동기대비로는 △3.7% 기록
  - 연간 계약잔액 증가율은 '18년 9.7%에서 '19년 0.1%로 대폭 둔화되던 상황
- 동기간 위안화 은행대출 잔액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7.9%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

중국의 용자리스 계약잔액 추이



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WIND

□ 장기화되는 설비투자 침체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리스업은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 코로나19 등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가 리스 계약 규모에 고스란히 반영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yoy)은 '19년 연간 5.4%에서 '20년 상반기 △3.1%로 하락
    - 특히 설비투자는 '19.1분기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하여 '19년 연간 △0.9%, '20년 상반기 △13.9%를 기록
    - 용자리스업 계약잔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19.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으로 감소
- 또한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항공, 조선 등 경기민감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에 직접 노출

중국 주요 은행계 금융리스사의 자산 비중 TOP 3 분야 및 비중

(단위 : %)

회사명	1순위		2순위		3순위	
교은리스	항공기	25.2	공공사업	22.5	에너지설비	19.8
국은리스	인프라건설	42.7	항공기	36.6	선박, 상용차, 기계	13.3
민생리스	대형 설비	48.0	선박	26.0	항공기	21.4
초은리스	설비	61.0	항공	19.7	선박수송	19.3
건신리스	도로운송	24.9	항공	22.7	철강, 석탄	14.7
흥업리스	민생사업	40.7	그린(친환경)	36.8	에너지, 화공	10.7

자료 : Fitch Bohua

□ 한편 '18년 용자리스업 관리감독 일원화\*를 기점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 '18.4.20일 이전까지는 금융리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담당하고, 여타 내자리스사와 외자리스사는 상무부가 관할해왔으나 4.20일을 기점으로 내자, 외자리스사를 비롯해 팩토링, 전당포 등의 관리감독 주체를 은보감회로 일원화
- 중앙정부는 리스업의 본질이 실물경제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위탁대출,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을 통한 자금 공급) 등 본업이 아닌 업무 비중을 낮추도록 압박
  - '20.7월 발표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잠정방안>은 리스자산이 총자산의 60%를 밀돌아서는 안 되고, 채권투자가 순자산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베이징 등의 지방 금융감독당국은 '18년부터 자료 대조, 현장실사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상태에 있는 업체 정리작업 실시
  - 전국용자리스기업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6월 기준 전체 용자리스사 (금융리스사 제외) 중 72%는 실체가 없는 'Shell Company'이거나 휴업상태

- 또한 금융당국은 중소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개발은행, 교통은행, 농촌은행 등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 \* 리스 대상 물건 부적합, 지방정부 및 관련 용자플랫폼에 대한 위법적인 자금 제공, 자산건전성 기준 엄중 위반, 리스자금 용도 및 리스 후 관리감독 미흡, 내부거래 위반 등이 주요 사유
- '19년 전체 70개 금융리스사 중 12개 업체가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

최근 중국의 리스업 관련 정책 동향

발표 시기	주관 부문	정책 문건명	개요/비고
'18.5.14	상무부	용자리스사, 팩토링회사, 전당포의 관리책임 조정 사항에 관한 통지	모든 용자리스사 관리감독 주체를 은보감회로 일원화. 이후 은보감회는 非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자, 외자 리스사의 일상적 감독권을 지방금융감독관리국에 위탁
'20.4.7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지침(시범시행)	수신 및 대출금지를 비롯한 11개 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0.6.9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용자리스사 감독관리 잠정방안	용자리스업의 본질이 '자금의 융통'보다 '물자의 융통'에 있다고 강조하고, 위탁대출, 팩토링 업무 등을 제한
'20.7.3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금융리스사 감독관리 등급평가방법(시범시행)	등급평가(총 5등급, 7단계) 요소와 방법, 등급별 감독관리 강도 차별화 등 명시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 정리

□ 은행권은 실물경기 부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에도 리스업 진출을 계속 시도

- 설비투자 침체, 당국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리스회사 수는 '17년 69개에서 '20.1분기까지 70개\*로 정체
  - \* 이 중 45개는 은행이 지배주주이거나 지분을 보유한 은행계 리스사
- 중국의 자산규모 1위 리스사인 ICBC 금융리스의 '19년 총자산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2,710억위안(약 46.2조원)을 기록
- 그러나 은행권의 금융리스사 설립 시도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지속
  - 중국은행은 '20.4월 은보감회로부터 중은금융리스회사 설립을 비준받고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에 정식으로 개업
    - 전체 등록 자본 108억위안(약 1.8조억원) 중 100억위안을 중국은행이 출자
  - 그 밖에 광발(廣發)은행과 강음(江陰)농촌상업은행, 청도(靑島)농촌상업은행, 성도(成都)은행 등이 은보감회에 설립 계획을 제출하고 비준 대기 중

최근 3년간 중국의 리스사 유형별 동향

(단위 : 개, 억위안)

항목	연도	금융 리스사	용자리스사	
			내자	외자
기업수	'17	69	276	8,745
	'18	69	397	11,311
	'19	70	403	11,657
	'20.1Q	70	406	11,669
기업당 평균 계약잔액	'17	330.4	68.1	2.2
	'18	362.3	52.4	1.8
	'19	357.6	51.6	1.8
	'20.1Q	357.6	49.7	1.7

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WIND

중국의 총자산 Top10 리스사

(단위 : 억위안)

업체명	유형	총자산	순이익
工銀(ICBC)	금융	2,710	34.36
渤海(BOHAI)	내자	2,655	18.48
國銀(CDB)	금융	2,613	29.38
遠東(FAR EAST)	외자	2,606	48.28
平安(PINGAN)	외자	2,546	44.76
交銀(BOCOM)	금융	2,531	30.21
招銀(CMB)	금융	1,887	25.01
民生(CMBC)	금융	1,877	-
中航國際(AVIC)	내자	1,488	17.11
中銀航空(BOC AVIATION)	외자	1,401	49.69

주 : '19년 기준

자료 : 零壹财经(링이차이징)

- 이는 은행권이 여전히 리스업을 사업 다각화 분야로서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
  - 대형은행과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의 수익성은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비율은 리스사가 은행보다 양호
    - 전국 규모 15개 상장은행의 '19년 자본수익률(ROE)은 11.07%, 대형은행 산하 11개 금융리스사의 ROE는 10.02%(Golden Credit Rating, WIND 등 참고)
    - 부실비율은 '18년 기준 상장은행이 1.51%,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는 1.22%

□ 중국 정부는 시장 질서를 정돈해나가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리스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

-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실물경기 하강 방어 등에서의 리스업 역할을 계속 중시하며 이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견지
  - '20.7월 발표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잠정방안>에 용자리스회사가 장비제조업 발전,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설비 수출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명시
  - 국무원은 지난 7월 15일 상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설비 용자리스 분야 진출을 장려할 것임을 재천명
- 한편 중국 리스업계는 코로나 시기에 항공, 조선 등 기간산업의 위기를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 중
  - \* Clarksons에 따르면, 20년 1~5월 기준 리스사의 신규 선박 투자액은 14억달러로 중국 전체 투자액의 40%를 차지. 이에 힘입어 중국의 동 분야 세계 순위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

#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수빈 (soobin@kdb.co.kr)

- ◆ EU 분류체계(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으로, 지속가능금융의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과 관련하여 EU 분류체계를 참고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수립중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 EU 분류체계는 EU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확대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임

- EU 분류체계의 수립은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2018.3월) 중 하나로, 2019.5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 2019.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TR)을 근거로 함
  - \* EU의 Regulation은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모든 EU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 ※ EU는 2015년 UN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후 지속가능금융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EU 분류체계 규정(TR)은 환경목표 6가지를 설정하고, 판단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함

EU 분류체계 규정(TR)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온실가스 감축)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Substantial Contribution)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o No Significant Harm, DNSH)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Minimum Social Safeguards)* 4)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에 부합
②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 등

-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개념을 명시하여 기관·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실질적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으나 친환경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 참고1 : EU 분류체계에 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사례 >

- (농림수산업) 복원, 기존 삼림 관리, 가축생산, 다년생 작물재배 등
- (전기/가스/공조) 태양광·태양열·풍력·해양에너지·수력·지열·바이오에너지발전 등
- (건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존 건물 수리, 새 건물 건축 등
- (제조업) 저탄소기술 제품, 원료플라스틱,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 (상하수도/폐기물) 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운송 등
- (수송/항공업) 저탄소 교통인프라, 수상시설 건축 등
- (정보통신)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기반 솔루션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8.13.)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Kick-off) 개최

□ EU 분류체제는 법제화를 거쳐 지속가능금융의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할 전망으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은 EU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정부의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 수립에 대비하여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술선별기준(TSC)\* 등 상세기준을 위임법률(Delegated Act\*\*)로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EU 공통기준을 수립할 계획임
  - 기술전문가그룹(TEG)\*\*\* 및 국제플랫폼의 기술선별기준(TSC) 제안을 바탕으로
    -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목표 기준은 2020년까지 법제화 및 2021년부터 적용, 나머지 목표 기준은 2021년까지 법제화 및 2022년부터 적용됨
    - 2022년부터 EU 내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정보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담하므로, EU 분류체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각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들을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기준으로 나열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검토함(TEG, Taxonomy: Final report, 2020.3월, Summary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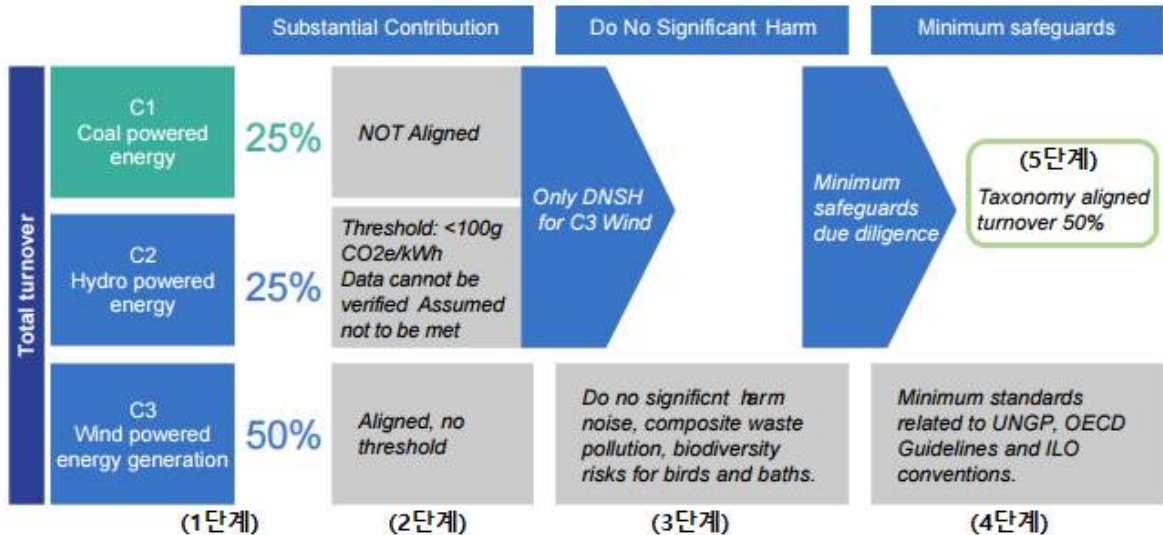
\*\* 유럽집행위원회가 EU 법률의 상세 집행기준 등 보조적 요소들을 추가하기 위해 제정함

\*\*\*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8.7월 ①기후변화 완화 및 ②기후변화 적응 목표에 대한 기술선별기준(TSC) 마련을 위해 조직된 민간 전문가 그룹. 2020.10월부터는 나머지 4개의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으로 대체됨

- EU 분류체제는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활용중인 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은 EU 분류체계 파악,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사전대비가 요구됨
  - 정부는 EU 분류체계 및 ISO 분류체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를 개발중임
  -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기존 녹색·지속가능채권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그린뉴딜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Greenwashing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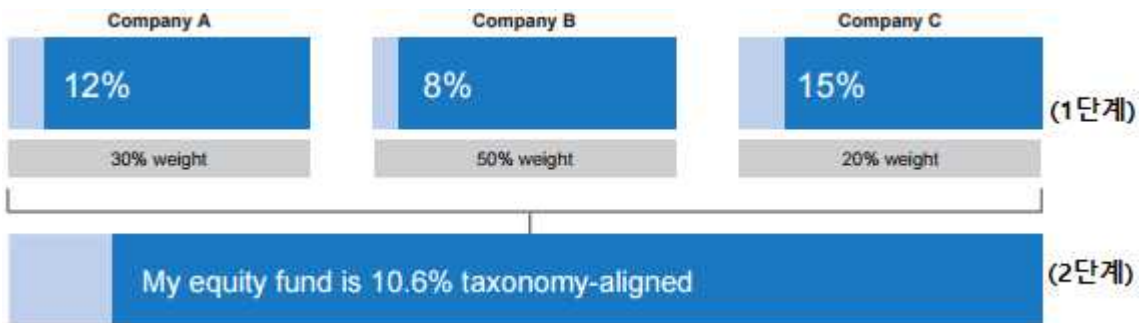
\* ISO Taxonomy,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의 녹색금융 관련 분류체계로, EU 분류체계와 유사한 구조임

< 참고2 : 개별기업의 EU 분류체계 적용 사례 >



- (1단계)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Sector별 매출비중 등으로 구분하고, EU 분류 체계상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선별함  
C1(석탄발전업) 25% 제외, C2(수력발전업) 25% 통과, C3(풍력발전업) 50% 통과
- (2단계) 각 경제활동의 <sup>1)</sup>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조건 확인  
C2(수력발전업) 25% 관련 '100g CO2e/kWh 미만' 기준치 미충족, 제외  
C3(풍력발전업) 50% 기준치 없음, 통과
- (3단계) 각 경제활동의 <sup>2)</sup>중대한 피해(DNSH) 조건 확인  
C3(풍력발전업) 50% 중대한 피해 없음, 통과
- (4단계)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sup>3)</sup>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여부 확인
- (5단계) 분류체계에 적합한 매출액 등을 계산  
최종 50%를 공시

< 참고3 : 투자 포트폴리오의 EU 분류체계 적용 사례 >



- (1단계) 각 기업별로 EU 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의 매출액 등을 계산(참고2)  
기업A 12%, 기업B 8%, 기업C 15%
- (2단계) 기업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류체계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산  
기업A 12%×0.3 + 기업B 8%×0.5 + 기업C 15%×0.2 = 10.6%를 공시

자료 : 기술전문가그룹(TEG) Taxonomy: Final report(2020.3월)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홍콩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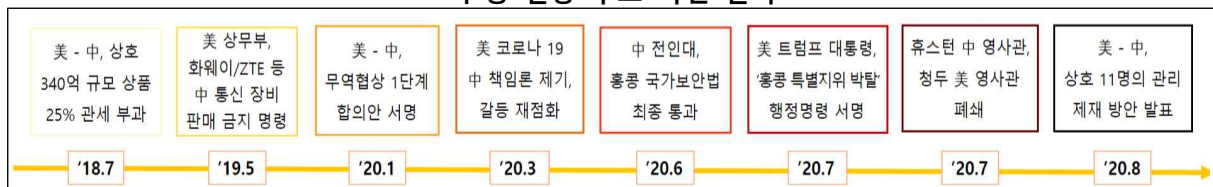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수연(ksuyeon926@gmail.com)

- ◆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 제재에 따른 부정적 기업 환경 우려로 외국 기업 이탈
- ◆ 기업 이탈 우려에도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당국 또한 홍콩-본토 연결 강화 등 방안으로 자본 유출 완화 노력

##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화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18년 무역 분쟁으로 시작돼 올해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나 코로나 19 대유행 책임을 놓고 재점화
  - '18.3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 시작
- 이러한 가운데, '20.6.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정권 전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최종 통과
  - 홍콩 보안법은 테러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의 처벌\*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여 일국양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 최고 형량은 무기형이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홍콩의 자치권을 지지하면 처벌 가능
- 이에 미국은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 관료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은행 거래 제한, 미국산 국방 물자와 이중용도 기술 수출 중단 등 제재 시행
  - \* '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분리된 독립체로 대우하여 다양한 경제무역 특권을 제공
  - 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후속 조치로 중국과 체결한 회계 협정\* 폐기, 홍콩 추가 관세 부과\*\*, 중국 공산당원 입국 제한 등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중국에 지속적인 압박
    - \*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중국 상장기업의 자료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받아 중국 기업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으나, 규정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됨
    - \*\* 기존 부과되고 있는 관세 1.6%에서 중국과 같은 수준인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음

미-중 갈등 주요 사건 일지



## □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 홍콩 기업 환경 관련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며 홍콩 내 기업의 이탈 발생

- 보안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처벌 가능성과 이로 인한 홍콩 내 정보 취득의 어려움, 미국의 추가 제재 등을 우려하며 외국계 기업 이탈
  - '20.3월 일본 증권사 노무라 홀딩스는 '21년부터 사무실 축소 계획을 발표, '20.6월 호주 맥쿼리그룹도 9월 이전에 사무실 대규모 정리 결정
  - '20.7월 독일의 은행 도이체방크도 최근 10년 중 최초로, 신임 아시아 CEO의 집무실을 홍콩이 아닌 싱가포르에 두기로 결정
- 많은 외국계 기업이 향후 홍콩 사업 축소나 철수 가능성 시사
  - '20.7월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의 홍콩 내 304개 일본 기업 조사 결과, 37%인 112개 기업이 홍콩 사무소 철수나 규모 축소 등을 검토
  - '20.7월 주홍콩 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 183개 기업 조사 결과, 64%인 117개 기업이 중국 정부의 개입 등을 우려하며 홍콩 기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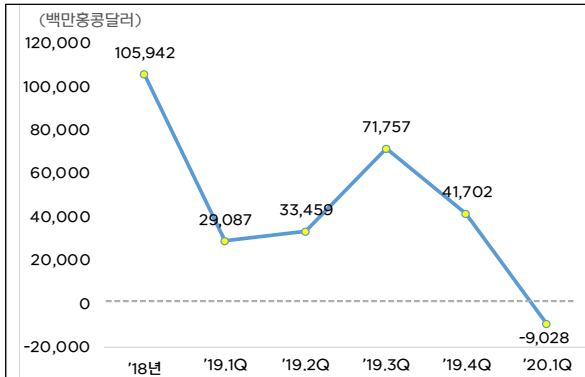
## □ 기업들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당국 또한 자본 유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

-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6.30일)에도 불구하고 5월 4420억 달러에서 7월 4500억달러로 증가
  - 외환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는 1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 무역수지 흑자로 2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또한, 홍콩의 경상수지는 지난 1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2분기부터 회복된 중국 경제\*의 영향을 고려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
    - \* 2분기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3.2%이며, 산업생산과 제조업 PMI 지수 또한 상승
  -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제재, 홍콩 내 코로나19 대유행\*, 국가보안법 통과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또한 상존
    - \*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14일 기준 4,313명으로 '03년 SARS 감염자 수인 1,750명을 초과했으며, 이에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행제한 조치 등을 시행
- 1분기 홍콩의 비거주자 증권투자는 유출이 발생했으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홍콩 내 IPO 증가 등 주식시장의 자본 유입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
  - 국제수지표(BoP, Balance of Payment)상 비거주자 증권투자는 '1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608억홍콩달러(약 79억달러)의 유출을 기록

- 반면 거주자 증권투자는 2분기 연속 자본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PwC에 따르면, 홍콩은 '20년 상반기에만 64개의 IPO를 유치하는 등 증시 호황
- 홍콩 증시 시가총액에서 중국 기업 비중은 78%이고, 올해 상반기 홍콩 주식 발행 실적\* 중 중국 기업이 84%를 차지하며 홍콩 시가총액은 증가하는 추세
- \* 기업공개(IPO), 전환증권 및 상장주식 매매 등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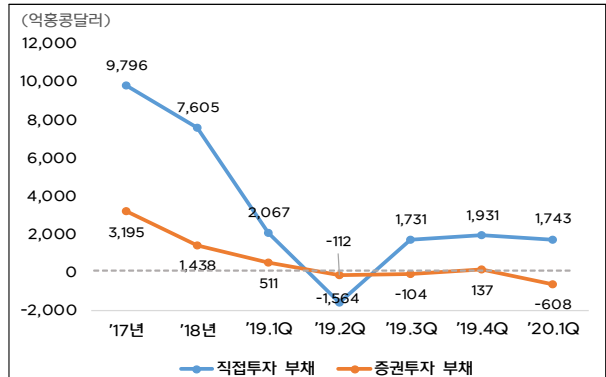
- 비거주자 직접투자는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으로 불거진 시위 사태 이후, 안정적인 유입세가 지속
- '19년 2분기에 잠시 유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3분기부터 연속 유입세 유지

홍콩 BoP 경상수지 추이



자료 : 홍콩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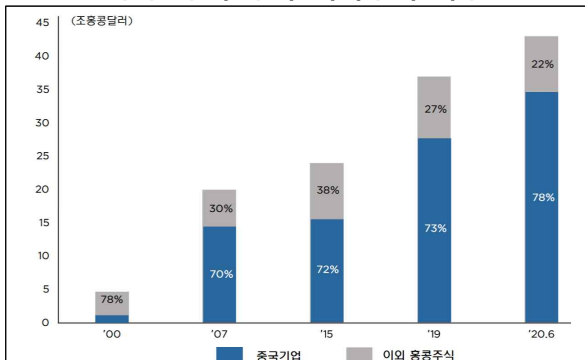
홍콩 BoP 금융계정 추이



자료 : 홍콩 통계청

- 또한, 중국은 본토 자본시장과 연결하여 본토에서 홍콩에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해 홍콩의 해외자본 조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20.6.29일 보안법 통과 직전, 중국 금융 당국은 웨강아오 다완취(Greater Bay Area) 지역의 자산 관리 연결(Wealth Management Connect) 시범 계획 발표
- \* 각 지역 거주자가 웨강아오 다완취 구역 내 다른 지역 은행의 상품에 교차 투자하도록 장려
- ※ 중국 정부가 '19년 발표한 웨강아오 다완취 프로젝트는 '35년까지 광둥성 내 9개 시와 홍콩, 마카오 (총 11개 지역)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이 지역을 첨단기술허브로 만들기 위해 발표한 계획

홍콩 증시 중국 시가총액 비중



자료 : HSI, WSJ,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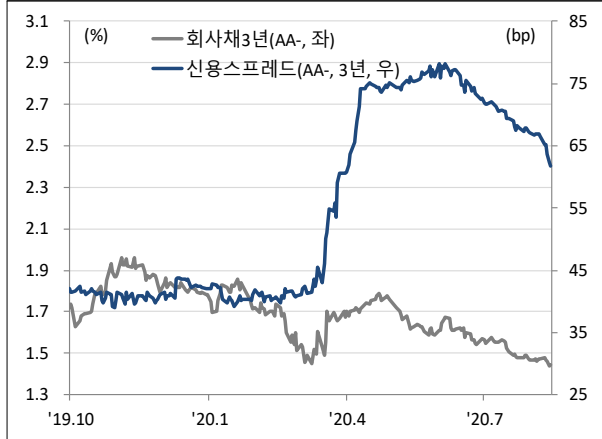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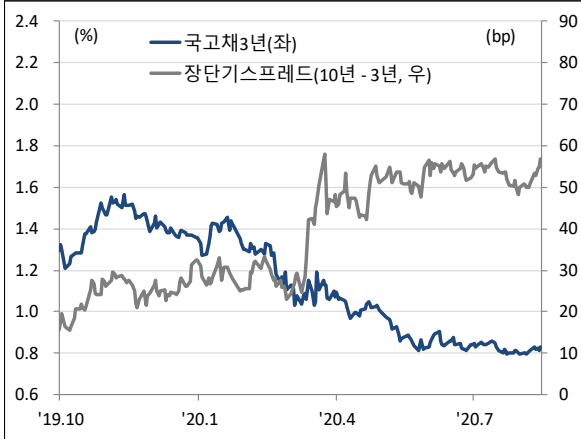
중국의 웨강아오 다완취(Great Bay Area) 지도



자료 : 매일경제(2019.2.19) "제조 2025 못 놓는 中... 美 보란 듯 '중국판 실리콘밸리' 공개" 기사 인용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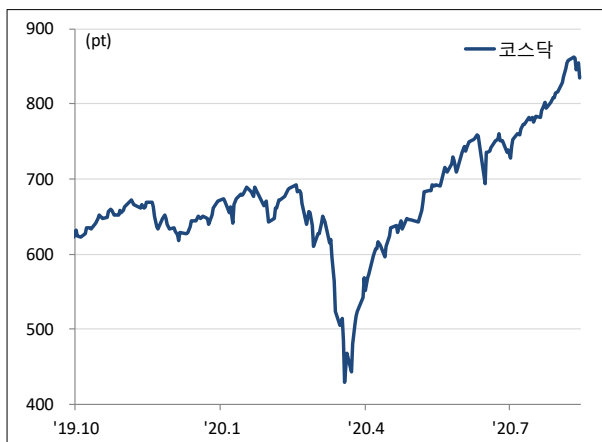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828% (1.8bp ↑), 신용스프레드 61.7bp (4.8bp ↓)



**환율** 원/달러 1,184.6원 (0.1원 ↓), 엔/달러 105.96엔 (0.03엔 ↑)



**주가** 코스피 2,407.49pt (2.37% ↑), 코스닥지수 835.03pt (2.64%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91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http://rd.kdb.co.kr), [kdb.co.kr](http://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